

## Ulysses의 “The Parable of The Plums” motif 연구

陳 善 柱  
(忠北大)

이 글은 James Joyce의 *Ulysses*(1922)에 나오는 *A Pisgah Sight of Palestine* or *The Parable of The Plums* motif<sup>1)</sup>를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한 시도이다.

“자두의 비유”(The Parable of The Plums)로 흔히 약칭되는 이 주제는 지금까지 Joyce학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아왔다. 예를 들면, Hugh Kenner는 이를 “a parable of infertility”<sup>2)</sup>라 하였고, Clive Hart는 “a picture of futility and sterility”<sup>3)</sup>라고 하였는가 하면 Harry Blamires는 “The phrase ‘Pisgah view’ is used of ‘any vision or hope of which a man will not see the realization’(*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라는 이유로, “the theme of Moses disappointed thus recurs”<sup>4)</sup>라고 주장하였다. J.G. Keogh는 “the virgin onanism of her[Dublin’s] citizenry”<sup>5)</sup>라고 비꼬는 가 하면, Michael H. Begnal은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a dirty joke”<sup>6)</sup>라고 까지 극언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건설적인 주장을 펴는 학자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평가가 일정하지 않은 이 주제를 이 글에서는 유기적이고도 새로운 접근방법을 써서 면밀하게 살펴보려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후자의 평가를 하는 학자들과 입장을 같이 하려한다.

이 글에서 펴하는 접근방법은 첫째, “자두의 비유” 이야기를

1. 이 용어는 “Aeolus” episode에서 두 산파가 구경을 하기 위하여 Nelson’s Pillar에 올라갔으나 어지러워서 제대로 구경을 하지 못하고 사간 자두(plum)만 먹으면서 그 씨만 내발고 있는 광경을 보고 Stephen Dedalus가 이렇게 부른 데서 나온 말이다. See James Joyce,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London: Bodley Head, 1986), pp. 122-23.

—But what do you call it? Myles Crawford asked. Where did they get the plums?

—Call it, wait, the professor said, opening his long lips to reflect. Call it, let me see.

Call it: *Deus nobis baec otia fecit*.

—No, Stephen said. I call it *A Pisgah Sight of Palestine* or *The Parable of The Plums*.

—I see, the professor said. He laughed richly.

—I see, he said again with new pleasure. Moses and the Promised land. We gave him that idea, he said to J.J. O’Molloy.

2. Hugh Kenner, *Dublin’s Joyce* (London: Chatto & Windus, 1955), p.251.

3. Clive Hart, *James Joyce’s ‘Ulysses’* (Sydney Univ. Press, 1968), pp.53-54.

4. Harry Blamires, *The Bloomsday Book: A Guide through Joyce’s Ulysses*, (London: Methuen & Co. Ltd., 1967), p.58.

5. J.G. Keogh, “Ulysses’ ‘Parable of the Plums’ as Parable and Periplum,” *James Joyce Quarterly*, 7 (Summer 1970), 377.

6. Michael H. Begnal, “Stephen’s Terrible Parable,” *JJQ*, 23 (Spring 1986), 357.

“midwife” motif와 밀착시켜 이해하는 데 있다. “자두의 비유”와 “산파”의 이야기는 서로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문제라는 입장에서 이 두 이야기가 나오는 “Aeolus” episode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자두의 비유”의 주제가 가진 계시적인 의미를 작품 전체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기로 한다. 이를 확인함에 있어, Joyce는 “Aeolus”에서 Stephen Dedalus와 Leopold Bloom을 병치시키는 방법(juxtaposing art)을 쓰고 있음<sup>7)</sup>에 착안, 이 두 인물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Moses parallel”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Bloom과 Molly Bloom간에도 Stephen의 경우와 비슷한 “자두씨”(plumstone)의 주제가 형성되고 있음에 유념, 이들 부부간에 전개되는 이 주제를 추적한 다음, 결국 Stephen의 주제와 어떻게 통합되는가를 밝히기로 한다. 이러한 확증의 과정을 거쳐 “자두의 비유”의 주제가 세 인물에게 어떠한 공통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특징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자두의 비유”의 성립과정을 “산파”의 주제와 결부시켜 살펴본 다음, 이 비유와 Stephen과의 관계를 먼저 밝혀보기로 한다. “Aeolus” episode에서 Stephen은 아침에 Deasy교장으로부터 부탁받은 편지의 발표를 위하여 정오경 Dublin의 변화가에 있는 *Freeman's Journal* 사(社)에 나와 있다. 신문사 편집국에 앉아있는 그에게 길 아래로 두 산파가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그는 이들을 두고 MacHugh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Two Dublin vestals, Stephen said, elderly and pious, have lived fifty and fifty three years in Fumbally's lane.

—Where is that? the professor asked.

—Off Blackpitts, Stephen said. (UB, 119)

Stephen이 “Two Dublin vestals”<sup>8)</sup>라고 부르는 이들 두 산파는 그가 그 날 처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Proteus” episode에서 오전 11시에 Sandymount 해변을 산책할 때 이미 본바 있는 Anne Kearns와 Florence MacCabe라는 두 산파가 Dublin 한 복판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한시간 전에 해변에서 보았을 때는 그중의 하나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다.

They came down the steps from Leahy's terrace prudently, *Frauenzimmer*: and down the shelving shore flabbily, their splayed feet sinking in the silted sand....Number one swung louridly her midwife's bag, the other's gamp poked in the beach. From the liberties, out for the day. Mrs Florence MacCabe, relict of the late Patk MacCabe, deeply lamented, of Bride Street....What has she in the bag? A misbirth with a trailing

7. Cf. James H. Maddox, Jr., *Joyce's Ulysses and the Assault upon Character*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 Press, 1978), p.96: “‘Aeolus’ juxtaposes Bloom and Stephen... and out of this juxtaposition arises a powerful metaphor for viewing the two heroes and the book itself: the metaphor of ‘A Pisgah sight of Palestine.’”

8. “Vestal virgins”는 원래 로마신화에서 베스타여신(불과 부엌의 여신)을 20년간 충직하게 섬긴 6명의 처녀를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서 “Two Dublin vestals”라 함은 이들 두 산파가 Dublin의 fumbally's Lane이라는 한곳에서 50년과 5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충직하게” 살고있음을 두고 하는 말이다. See Weldon Thornton, *Allusions in Ulysse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3), p.126.

navelcord, hushed in ruddy wool. The cords of all link back, strandentwining cable of all flesh. That is why mystic monks. Will you be as gods? Gaze in your *amphalos*. Hello! Kinch here. Put me on to Edenville. Aleph, alpha: Nought, nought, one. (UB, 31-32)<sup>9)</sup>

Mrs. Florence MacCabe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음을 알자 Stephen은 그속에 탯줄이 달리 유산된 아기가 들었으리라 추측한다. 탯줄에 생각이 미치자 인류의 시조인 Adam과 Eve에게까지 연상이 확대된다. 탯줄을 전화선으로 보고 "Edenville"에 있는 인류의 시조와 통화하는 데까지 상상이 발전한다. 이렇게 생명의 시원까지 연상의 계기를 제공했던 두 산파가 지금 12시경에 시내 변화가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시내북판에 나타난 이들은 고운 옷에, bonnet을 쓰고 "Wise virgins" (UB, 119)<sup>10)</sup>처럼 준비성있게 비가 올것에 대비, 우산까지 들고있다. 시내 나들이를 나온 것이다. 특히 Nelson's pillar 꼭대기에 올라가서 Dublin 전경을 구경하고자 나온 것이다. 그들은 근처에서 간돼지고기 (brawn)며, 빵이며, 잘 익은 자두등의 먹을 것을 사서 들고 Nelson's pillar의 꾸불꾸불한 층계로 올라간다. 이 장면을 Stephen은 상세하게 설명한다.

—They buy one and fourpenceworth of brawn and four slices of panloaf at the north city diningroom in Mahborough street from Miss Kate Collins... They purchase four and twenty ripe plums from a girl at the foot of Nelson's pillar to take off the thirst of the brawn. They give two threepenny bits to the gentleman at the turnstile and begin to waddle slowly up the winding staircase...praising God and the Blessed Virgin...peeping at the airslits. Glory be to God. They had no idea it was that high. (UB, 119)

Anne Kearns와 Florence macCabe는 먼저 간돼지고기와 빵을 먹은 뒤에 구경을 하기 위하여 난간쪽으로 간다. 지붕을 쳐다보기도하고 시내를 굽어보기도 한다. 시내를 굽어보니 여러 교회가 한눈에 들어온다.

—But they are afraid the pillar will fall, Stephen went on. They see the roofs and argue about where the different churches are: Rathmines' blue dome, Adam and Eve's, saint Laurence O'Tooles's.... (UB, 121)

9. Cf. Blamires, p.56:앞에서는 두 여인이 Fumbally's Lane에서 50년과 53년을 각각 살아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Florence MacCabe가 'Bride Street'에 살고있다고 한다. 이점으로 보아 Joyce는 다른 두 Florence MacCabe를 의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초기의 원고에서 작가자신이 Blackpitts'를 'Bride Street'로 고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Fumbally's Lane은 'Blackpitts'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다." See Robert M. Adams, *Surface and Symbol* (Oxford Univ. Press, 1962), p.148.

10. "Matthew 25:1~13에서 Jesus가 말한 비유속에 나오는 열명의 처녀들. 10명의 처녀가 모두 신랑감을 맞이하려 할 때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램프는 가져가되 기름을 가져가지않고, 5명의 현명한 처녀들은 램프와 기름을 모두 가져갔다. 마침내 신랑감이 오자 준비를 잘한 처녀들은 곧 결혼에 들어갔으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러지 못하였다는 내용. See Don Gifford with Robert Seidman, *Notes for Joyce* (New York:E.D. Dutton, 1974), p.119.

그들은 처음으로 보는 광활한 경치를 조망하면서 논란을 한다.<sup>11)</sup> 교회의 위치를 두고 왈가왈부 하면서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노라니 Pillar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인데다 현기증마저 난다. 그래서 이번에는 “statue of the one handled adulterer”(UB, 121) Nelson을 쳐다 본다. 한참을 그러고 있노라니까 이번에는 목이 아프다. 그래서 그들은 Dublin 시내를 내려다보지도 못하고, Nelson입상(立像)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멍하니 선채 가져간 자두봉지를 열어 그것을 꺼내먹으면서 그 씨를 내뱉는 것으로 만족한다.

—It gives them a crick in their necks, Stephen said, and they are too tired to look up or down or to speak. They put bag of plums between them and eat the plums out of it, one after another, wiping off with their handkerchiefs the plumjuice that dribbles out of their mouths and spitting the plumstones slowly out between the railings. (UB, 121—22)

이 광경을 같이 본 *Freeman's Journal*의 editor인 Myles Crawford가 자두씨를 내뱉는 순간을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느냐는 물음에 Stephen이 즉석에서 “*A Pisgah Sight of Paestine or The Parable of The Plums*” (UB, 122)라고 불려, 약칭 “자두의 비유”라는 주제가 형성된다.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이 주제를 두고 많은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것은 “Moses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죽었다”는 J.J.O'Molloy(UB, 118)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말은 산파가 시내에 나타나기 전에 한 말일 뿐 아니라 Stephen이 “자두의 비유”라는 이름을 짓기 훨씬 전에 한 말이다. 그러므로 이 “비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동떨어진 언급을 근거로 해석을 내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비유에 자체에 내포된 의미를 캐는 것이 옳을 줄 안다.

“Pisgah”란 신명기 34:1에 적힌 대로, Moses가 약속의 땅 Canaan을 바라본 Palestine(지금의 Jordan)의 산봉우리 이름이다. 따라서 “*A Pisgah Sight of Palestine*”은 “the vision that was granted Moses”<sup>12)</sup>로서, 앞길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 또는 기회라는 일반적인 뜻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말은 가능성에 가득 찬 Stephen 자신의 “vision”(UB, 119)의 비유적인 표현임이 분명해진다. 이 “비유”는 물론 자두씨를 뱉으며 구경을 하는 산파를 보고 즉흥적으로 창안한 것이지만 그 의미는 산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를 지향하는 Stephen 바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Moses가 “*A Pisgah Sight of Palestine*”하였듯이 Stephen 자신도 글을 쓰고 글을 인쇄하는 곳에서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묵시적으로 확인한다고 볼 수 있다. Marilyn French가 이 “비유”의 성립배경을 요약한 뒤, 그 중요성을 이렇게 지적한다.

11.Cf. Rich Bowers, “Stephen's Practical Artistic Development,” *JJQ*, 21(Spring 1984), 240:

“Sustaining their exertions with coarse food, they argue over the broad view they see for the first time but live on in spite of it. If it is a failed expedition, only the expedition fails. The women do not. Life goes on.”

12.Gifford, p.121.

Like his later Shakespeare story, it [=Stephen's parable] is built out of small real details: it picks up the conversation about Moses, the midwives of Proteus, and the pillar that stands at the heart of the city. It is important because it shows Stephen able to act, and also the particular direction he must move in as a writer.<sup>13)</sup>

Stephen은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1916)끝에서 "아직 창조되지 아니한 내 민족의 양심을 버리겠다"<sup>14)</sup>는 포부를 밝힌 바 있으나 그러한 포부를 밝힌 지 이년이 지나도 문학적으로 이룬 일이 없다. 그러나 그의 생일이기도 한 Bloomsday<sup>15)</sup>를 맞아 그간 그를 짓눌러온 좌절과 실의를 극복, 무엇인가 실제로 빨리 써야하겠다는 의사를 암시하기 시작한다. 이 의사의 암시가 바로 "자두의 비유"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면 Stephen은 무엇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가를 산파의 등장을 전후하여 확인해 보기로 한다. 도심에 나타난 두 산파를 보기 직전 그의 머리속에 "Dublin. I have much, much to learn"(UB, 119)이라는 생각이 스친다. 이 전보문같은 message는 Stephen의 의식속에 창조적인 예술가로서의 자각이 움트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무엇을 어떻게 써야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단편적인 의식의 내용에 의하면, 그는 그의 민족이 사는 Dublin에 관하여 쓰되, 그러기위해서는 그 도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선행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의 실현여부는 이 부분의 "LET US HOPE"라는 표제(headline)속에 암시되어 있다.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면 곧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Stephen이 신문에 도착한지 얼마되지 않아 그의 문학적 재능을 잘 아는 Myles Crawford로 부터 대작을 쓰라는 권유를 받은 바 있다.<sup>16)</sup> 그러나 그 때는 하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산파가 나타나기 직전 간절한 말로 Dublin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Stephen에게 무엇을 어떻게 써야할 것인가에 관한 예술가로서의 자각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중 산파가 도심에 나타나자 Stephen은 전광석화처럼 "Dubliners"(UB, 119)이라는 표제와 함께 예술가로서의 Stephen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Dublin의 실상을 쓰는 일은 곧

13. Marilyn French, *The Book as World: James Joyce's 'Uly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1977), p.102

14. James Joyc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Chester G. Anderson, (The Viking Critical Library, 1977), pp.252-53: "Welcome, O

life! I go to encounter for the millionth time the reality of experience and to forge in the smithy of my soul the uncreated conscience of my race."

15. UB, p.458: ZOE:

What day were you born? Stephen: Thursday. Today. ZOE: Thursday's child has far to go....

16. UB, p.111: "The editor [=Myles Crawford] laid a nervous hand on Stephen's shoulder.

-I want you to write something for me, he said. Something with a bite in it. You can do it. I see it in your face....

Give them something with a bite in it. Put us all into it....

Dubliners를 쓰는 일이라는 것이다. Rick Bowers에 의하면 Dublin 사람들 이 그가 쓸 주제요, 내용이요, 제목이요, 또한 대상으로하는 독자로, 이것이 바로 그가 성취해야할 예술목표의 핵심인 것이다. Bowers의 주장을 직접 들어본다.

Indeed, he [Stephen] touches the core of his artistic object in a one-word plural—"Dubliners." It serves as title, theme, content, and audience. True to Myles Crawfords appeal, he is putting them "all into it."<sup>17)</sup>

예술가로서의 목표를 뚜렷이 인식한 Stephen은 사과들이 Nelson's pillar를 구경하러 나왔음을 알자 곧 "On now. Dare it. Let there be life" (UB, 119)<sup>18)</sup>라고 생각한다. Jesuit 교육을 받은 그는 예술적 창조를 종교적 창조와 유사한 것으로 보면서 과감하게 창작에 임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굳힌다. 예술목표가 확정된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고, 주저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아래 지금까지 피해온 경험세계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당당하게 작품을 창조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다.<sup>19)</sup>

다른 일은 다 잊혀두고 씨나 뽕으면서 자두나 먹고 있는 사과의 모습을 보고 Stephen이 껄껄 웃는데서<sup>20)</sup> 이러한 자신이 잘 드러난다. 그가 의미심장한 폭소를 하는 것은 사과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A Pisgah Sight of Palestine or The Parable of The Plums"라고 비유를 창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창조된 이 비유속에 그의 예술가로서의 낙관적인 자신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Stephen이 "자두의 비유"를 창안하게 된 것은 그가 신문사에서 사과를 봄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산과"의 이야기는 "자두의 비유"의 주제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임이 분명해진다. "산과"의 주제는 결국 예술창조의 가능성의 문제에 기여한다<sup>21)</sup>는 점에서 또 다른 "비유"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

17. Bowers, 239.

18. Cf. Gifford, p. 119: "Let there be life"는 Genesis 1:3에 나오는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의 parody로서 여기서는 예술적인 창조와 종교적인 창조를 유추의 관계에 놓고 생각한 것이다.

19. Cf. Bowers, p. 240.

"His mature mental affirmation: "On now. Dare it. Let there be life" strengthens both his artistic resolve and a sense of resolved experience in naturalistic detail, direct phrasing, and controlled theme.

20. UB, pp. 7-8:

"— It gives them a crick in their necks....and they are too tired to look up or down or the speak. They put the bag of plums between them and eat the plums or of it.... He gave a sudden loud young laugh as a close."

21. Cf. Matthew Hodgart, *James Joyce: A student Guid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8), p. 80:

"The theme of birth is associated with the two midwives that Stephen sees on the beach. Later they turn up in "Aeolus" as the two old women on Nelson's column when their meaning becomes clear: they assist the process of artistic creation," and Hodgart, "Aeolus," *James Joyce's Ulysses: Critical Essays*, eds. Clive Hart and David Hayman (Ber-

다. 이렇게 “산과”의 비유를 통해 창안된 “*A Pisgab Sight of Palestine or The Parable of The Plums*”는 Stephen에게 “an epiphany”<sup>22)</sup>요, “the first manifestations, in the novel, of the young artist's talent”<sup>23)</sup>가 아닐 수 없다. 겸허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로 Dublin을 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 “비유”는 예술가로서의 Stephen의 포부의 암시요, 가능성에 넘친 미래의 vision이기도 한 것이다.

“*A Pisgab Sight of Palestine*”을 상징하는 이 “자두의 비유”의 주제가 성공적이고, 생산적임은 Bloomsday를 정리하는 “Ithaca” episode에 쉽게 확인된다. 이 교리문답식 episode에 Moses of Egypt, Moses Maimonides, Moses mendelssohn등의 성공적인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란히 언급(UB, 563)되는 데서 암시를 받을 수 있지만 보다 확실한 근거는 이 “비유”가 직접 언급되는 데 있다. Stephen은 Bloomsday 다음 날 새벽 Bloom 집에서 “자두의 비유”를 다시 언급한다.

Did he see only a second coincidence in the second scene narrated to him, described by the narrator as *A Pisgab Sight of Palestine or The Parable of the Plums*?

It, with the preceding scene and with others unnarrated but existent by implication, to which add essays on various subjects or moral apothegms (e.g. *My favourite Hero* or *Procrastination is the Thief of Time*) composed during school years, seemed to him to contain in itself and in conjunction with the personal equation certain possibilities of financial, social, personal and sexual success, whether specially collected and selected as model pedagogic themes...for the use of preparatory and junior grade students or contributed in printed form, following the precedent of Philip Beaufoy or Doctor Dick or Heblon's *Studies in Blue*, to a publication of certified circulation and solvency or employed verbally as intellectual stimulation for sympathetic auditors...(UB, 561)

Stephen으로서는 두번째 하는 말이지만 Bloom으로서는 처음 듣는 이 “자두의 비유”의 이야기에서 그는 당장 이 비유가 갖는 의미를 알아차리고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및 성적 성공의 가능성”을 검토하기에 이른다. 이 “비유”의 결과를 상업적, 사회적, 성적 차원까지 확대하여 활용해보려는 그의 계획은 크게 엉뚱하게 보이나 지적인 한계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다지 이상할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가 Stephen의 문학적 재능의 소산인 이 비유를 다각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고 큰 기대를 거는 데 있다. Bloom의 이러한 반응을 통하여 Stephen이 창안한 “자두의 비유”는 기대를 걸기에 족한 생산적인 것임이 분명해진다. 더구나 Stephen이 Bloom을 정신적인 아버지로 수용하

---

key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7), p.126: “The midwives have presided over the birth of a miraculous Child, and now a great Modern writer is among us.”

22. William York Tindall,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London: Thomes and Hudson, 1963), p.166

“Plainly his parable, like a sketch for *Dubliners*, is an epiphany, showing something forth. It is our only evidence that he is the artist he thinks he is.”

23. C.H. Peake,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London: Edward Arnold, 1977), p. 196.

는 "Ithaca" episode에서 Bloom이 아들적인 Stephen의 비유에 희망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더욱 의미심장하다 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비유"를 Bloom과 Molly 간에 형성되는 "plumstones/seedcakes" motif와 결부시켜 확인해 보기로 한다. "Aeolus"에는 Stephen과 Bloom이 직접 대면은 하지 않지만 작품의 구조상으로는 주제상으로 "병치"되어 있음은 앞에서 적은 바 있다. 이러한 병치는 두 인물이 다 Moses를 생각하는 데서 먼저 확인된다. Stephen의 "*A pigah Sight of Palestine or The Parable of The Plums*"가 Moses와 관련되어 있듯이 Bloom도 Moses와 관련된 "Passover"<sup>24</sup>)를 생각한다.

#### AND IT WAS THE FEAST OF THE PASSOVER

...Poor papa with his hagadah book, reading backwards with his fingers to me. Pessach....All that long business about that brought us out of the land of Egypt and into the house of bondage *alleluia*....(UB, 101)

Bloom은 Moses가 복지에 이르지 못하고 죽은 분위기와 비슷하게 현재 무척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에게는 대를 물릴 아들도 없고, 부인 Molly와는 10년이상이나 성적으로 단절된 생활을 해 온다. 더구나 부인에게는 Blazes Boylan이라는 정부까지 있어 그날 오후 4시에 자기집에서 밀회를 하기로 되어있다. 그는 이 문제로 더욱 노심초사한다. 그러나 Stephen이 Moses가 Pishah에서 Canaan을 보았다고 생각하듯이 Bloom은 이 Moses parallel을 통하여 이 불행한 부인과의 관계가 작품의 끝에 가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LET US HOPE"라는 표제는 Stephen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counterpart인 Bloom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Bloom 부부의 정상적인 관계의 회복은 Stephen의 "자두의 비유"의 주제와 비슷한 "자두씨"의 주제를 통하여 성취된다. 그러면 Bloom 부부간의 "자두씨"의 주제는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살펴본다.

Bloom은 독자아들을 잃은 정신적인 충격때문에 성적인 관심을 잃고 현재 10년 이상이나 부인과 육체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해 온다. 설상가상으로 그날은 오후 4시에 부인이 정부와 정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 하루 종일 이 일로 괴로워한다. 워낙 천성이 고운 인간이라 그들의 밀회를 제지할 생각은 하지않고 다만 속으로 걱정만 할 뿐이다. 그는 "Lestrygonians" episode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유리창에 붙은 두 파리의 교미장면을 보고 Howth Hill에서 부인과의 연애시절에 가진 첫 정사장면을 애뜻하게 연상한다.

Glowing wine on his palate lingered swallowed. Crushing in the winepress grapes of Burgundy....Seems to a secret touch telling me memory....Hidden under wild ferns on Howth below us bay sleeping....Pillowed on my coat shed had her hair, earwigs in the heather scrub my hand under her nape...O wonder! Coolsoft with ointments her

24. Weldon Thornton, *Allusions in Ulysses* (New York: Touchstone Book, 1973), p.109:

"Passover is celebrated by the Jews to commemorate the destroying angel's passing over the Israelite's houses, marked with the blood of a lamb, and slaying the first born of the Egyptians only. This occurred the night before the Israelites' departure from Egypt."



hand touched me, caressed: her eyes upon me did not turn away. Ravished over her I lay, full lips full open, bussed her mouth. Yum. Softly she gave me in my mouth the seedcake warm and chewed. Mawkish pulp her mouth had eyes were, take me, willing eyes. Pebbles fell. She lay still....High on Ben Howth rhododendrons a nannygoat walking surefooted, dropping currants. Screened under ferns she laughed warmfolded. Wildly I lay on her, kissed her: eyes, her lips, her stretched neck beating, woman's breasts full in her blouse of nun's veiling, fat nipples upright. Hot I tonged her. She kissed me. I was kissed. All yielding she tossed my hair. Kissed, she Kissed me. (UB, 144)

포도주 기운에 약간 얼큰해진 Bloom의 머리속에 떠오른 그의 첫 사랑 장면은 Stephen의 "비유"와 상통하는 데가 있다. 그것은 산과가 "자두"를 먹고있듯, Molly가 "자근자근 씹은 미적지근한" seedcake을 Bloom의 입에 넣어주는 데 있다. 이로써 "plums/seedcake/plumstones의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짓씹은 seedcake을 맛있게 받아먹던 Howth Hill의 추억은 그러한 시절로 되돌아 갔으면 하는 Bloom의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다. Maddox의 지적대로 "The memory of Howth is the very archetype of Bloom's wish for paradise"<sup>25)</sup>이기 때문이다.

Bloom은 "Nausicaa" episode에서 오전에 Stephen이 산보한 바로 그 Sandymount해변에서 Howth Hill을 바라보며 다시 그 시절의 추억에 젖는다.

All quiet on Howth now. The distant hills seem. Where we. The therhododendrons. I am a fool perhaps. He gets the plums, and the plumstones. Where I come in. All that old hill has seen. Names change: that's all. Lovers: yum yum. (UB, 308)

여기서 다시 "자두"와 "자두씨"를 두고 Bloom의 생각과 Stephen의 생각이 일치한다. 그러나 Bloom의 생각은 그가 처한 그만의 불행한 처지를 대변한다. Molly와 관계에 있어 Boylan이라는 정부가 엉뚱하게 "자두"를 먹고 자기는 "자두씨"만 먹는다는 피해의식이다. 그러나 철쭉꽃이 만발했던 그 시절의 Howth를 연상하는 것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미로웠다. 그 시절로의 복귀를 염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두씨"만 먹는 "바보"가 아니라 "자두"를 먹는 당당한 남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Howth Hill에의 시절로 되돌아 가고자 하는 Bloom의 갈망은 다음날 새벽 Molly가 꼭 같은 장면을 간절하게 회상함으로써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녀는 Ulysses의 맨 마지막 "Penelope" episode의 맨 마지막에서 Bloom과 마찬가지로 Howth에서 현재의 남편과 첫 정사를 가지던 때를 연상한다.

We were lying among the rhododendrons on Howth head in the grey tweed suit and his straw hat the day I got him to propose to me yes first I gave him the bit of seedcake out of my mouth and it was leapyear like now yes 16 years ago my God after that long kiss I near lost my breath yes I was a flower of the mountain yes we are flowers....(UB, 643)

Bloom으로부터 청혼을 받던 날 입속의 seedcake을 Bloom에게 건네주

25. Maddox, p.66.

며 온몸을 맡기던 시절의 추억은 그녀에게도 16년간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염원이 있음을 입증한다. 이로써 Molly도 Bloom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paradise로 되돌아가려고 함을 알 수 있다.<sup>26)</sup>

Bloom에게 seedcake을 밀어넣어주며 온몸을 맡기던 초혼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Molly의 달라진 태도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Penelope”에서 Boylan의 거친 태도와 무식을 경멸한다든지 (UB, 610—11; 638), 남편과의 그간의 불행한 생활을 개탄하면서 (UB, 620; 635) 남편과의 사이에서 튼튼한 아기를 낳았으면 하는 생각 (UB, 611)등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가장 뚜렷한 예는 그녀가 다음날의 조반을 정성스레 준비하겠다는 데 있다. Bloomsday의 조반은 Bloom이 지었으나 다음날의 조반은 부인에게 짓도록 요구한다. 그녀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정성껏 준비하려 베틀다.

He starts giving us his orders for eggs and tea and Findon haddy and hot buttered toast I suppose well have him sitting up like the king of the country...I think get a bit of fish tomorrow or today is it Friday yes I will with some blancmange with black currant jam like lang ago not these 2 lb post of mixed plum and apple from the London and Newcastle Willams...I hate those eels cod yes Ill get a nice piece of cod. (UB, 628—29)

Molly는 정성껏 아침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Boylan과 관계를 청산하고 정숙한 부인으로서의 위치로 되돌아온다. 남편의 염원과 같이 신혼시절의 paradise로 되돌아옴으로써 16년전의 Howth 시절처럼 다시 남편에게 “깃썩은 미적지근한 seedcake”을 다시 주게 될 것이기다. 한편 Bloom으로서는 부인에게 조반을 시킴으로써 남편의 위치를 회복한다. humanity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로 Boylan을 정복하고 부인과의 성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자두씨”만 먹은 성적인 국외자가 아니라 “자두씨”를 먹는 명실상부한 가장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Bloom부부의 성적인 재결합의 가능성이 *Ulysses*의 climax에서 Moses parallel을 통하여 암시되어 있음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Bloom과 Stephen간에는 있어서 Bloom부부간에는 없던 Mosaic parallel이 “Ithaca”에 나오는 것은 Stephen에게 있어 “자두의 비유”가 가능성에 찬 미래의 vision의 암시이듯이 이들 부부에게도 밝은 미래를 기약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수있다. Bloom부부의 하루를 정리하는 대목에 Moses parallel이 이렇게 나온다.

In what final satisfaction did these antagonistic sentiments and reflections, reduced to their simplest forms, converge?

Satisfaction at the ubiquity in eastern and western terrestrial hemispheres, in all habitable lands and islands...(the land of the midnight sun... the land of promise)... redolent of milk and honey and of excretory sanguine and seminal warmth, reminiscent

26.Cf. Maddox, p.229:

Molly's repetition of the past in these last moments of waking consciousness is not a simple escape from the present; it is the recollection of the Edenic memory which she has just resolved upon reenacting tomorrow."

of secular families of curves of amplitude...(UB. 604)

“우유와 꿀이 흐르는” “복지”를 쳐다보는 Moses처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Bloom은 Molly의 풍만한 육체에 매료된다. jocoserious한 Ulysses의 정점에서 Bloom은 Molly의 엉덩이에 kiss를 함<sup>27)</sup>으로써 Molly라는 복지에 들어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A Pisgah Sight of Palestine or The Parable of The Plums* 주제를 Stephen의 경우로부터 시작하여 Bloom부부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다. 이 “비유”는 Stephen이 지어낸 비유이기는 하나 결코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Ulysses의 다른 주인공 Bloom부부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알았다. “병치”의 방법을 통해 세 인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시킨 이 “자두의 비유”는 예술가를 꿈꾸는 Stephen에게는 예술창조의 가능성의 암시요, Eden을 잃어버린 Bloom부부에게는 복락원의 가능성의 암시이다. 따라서 이 “자두의 비유”는 세 주인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그들의 성공적인 미래의 효과적인 비유임을 알수있다. 다음과 같은 Maddox의 말로 이 글을 맺는다.

“A Pisgah Sight of Palestine” suggests the present moments, rich with the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it is the moment of incipience. This is the moment of Stephen, Bloom, and Molly—unfulfilled, but on the verge of possible fulfillment.<sup>28)</sup>

27. UB, p.604: “Then? He Kissed the plump mellow yellow smellow melons of her rump, on each plump melonous hemisphere, in their mellow yellow furrow, with obscure prolonged provocative melonsmellonous osculation.”

28. Maddox, pp.99—100.